# 통도사 육군 병원 사용 新사료 발견

## 6월 21일 기자회견 열고
## 대광명전 낙서들 공개해

### 한국전쟁 야전병원 추정 자료
### 치료받은 군인들의 기록 추정
### 정부에 병원 인정 요청 추진

### 2019년 발견 용화전 연기문서
### '한국전 육군병원 분원' 증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낙서들. 당시 머문 군인들이 남긴 흔적으로 대광명전 벽에서 발견됐다. ①4284년 6월 10일 평양이라고 적힌 글귀 ②이름 및 연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낙서 ③통도사에 머문 장병이 그린 모자 낙서

통도사가 한국전쟁 중 야전병원으로 사용됐다는 새로운 사료가 발견됐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최근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정양원'의 분원인 야전병원으로 사찰이 이용됐다는 사료를 공개했다.

통도사는 6월 21일 "통도사 대광명전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글귀와 탱크, 트럭 등을 그린 그림 등 당시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이 남긴 낙서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낙서는 당시 상황과 군인들의 생각을 짐작케 한다. 낙서에는 '가노라 통도사야/잘 있거라 전우들아/정든 통도사를 떠나라고 하려마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군인의 안타까움이 읽힌다. 또 '단기 4284년 5월 29일 도착해 6월 12일 떠나간다' '4284년 평양' 등은 연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자 통도사서 머문 군인들의 여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밖에도 가족과 연인을 그리는 내용이 담긴 낙서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앞서 2019년 10월 1일 통도사는 용화전(龍華殿) 미륵불소조좌상 복장유물을 공개하며, 복장유물 연기문을 증거로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복장유물 연기문에는 "한국전쟁에서 3000여 부상병을 치료하는 육군병원이 통도사 내 설치됐고 부상병 치료를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당시 통도사 사찰과 각 법당, 요사채 및 암자가 무너지고 깨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용화전 미륵불은 영원히 파괴돼 못 볼 지경"이라 적시돼 있다.

통도사는 그해 10월 31일 이 복장유물 연기문의 기록 보존을 국방부 등에 요청했지만, 해당 부처인 국방부를 비롯해 국군의무사령부, 국가기록원, 수도통합병원 등에서 모두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2020년 1월 17일 통도사는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인정'을 위한 공문도 발송했지만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이를 반송했으며, 국군의무사령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보낸 상태다.

이날 통도사는 2월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보도기사도 자료로 첨부했다. 기사에 따르면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박모 소위가 69년 만에 전사를 인정받았다"며 "박 소위는 양산 통도사서 치료를 받다가 1951년 4월 15일에 사망했다"고 명시돼 있다.

통도사 측은 "1951년 10월 '이승만이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장병에게 양말을 1600개 선물했다'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도 확보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육군병원이 주둔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김진조 병원장(김내과 의원)과의 인터뷰도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평산마을 주민을 인터뷰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모을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한국전쟁 육군병원 분원 인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도사 사회과장 정대 스님은 "호국불교의 역할을 다한 통도사의 노력과 정성을 역사 속에 남기고 후대에 전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도사는 2019년 용화전 복장유물 연기문 공개 후 천도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육군병원 분원 인정을 받은 후 2021년 6월 천도재를 봉행할 방침이다.

# 쿵푸 펭수 아니라 '禪武 펭수!'

## 자이언트 펭TV, 골굴사 체험 1 · 2편 공개

EBS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불가(佛家) 비전 무술인 선무도의 달인이자 불제자로 거듭났다. 스님에게 정식으로 '펭달(達)'이라는 법명까지 받았다.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는 6월 19일과 22일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선무도 체험기인 '속세 떠나려고 머리 밀었습니다', '강해진다는 건…' 편을 잇달아 공개했다. 또한 골굴사에서 촬영한 가수 비의 '깡' 퍼포먼스 커버 영상도 6월 24일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첫 편에서는 '쿵푸펭귄'이 돼 지구를 지키겠다며 경주 골굴사를 찾은 펭수의 이야기가 담겼다.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의 총본산으로 6세기 경 조성된 국내 유일 석굴사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선무도를 배우기에 앞서 "자기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는 현웅 법사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탐 · 진 · 치 삼독심을 돌아봤다. 본격적으로 탐 · 진 · 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펭수는 삭발까지 감행하고 일관 스님에게 참선 명상을 배웠다. 마음을 정리한 펭수에게 일관 스님은 '펭달(達)'이라는 법명을 전했다.

두 번째 편에서는 불제자가 된 '펭수펭달'의 본격적인 선무도 수련기가 이어졌다. 펭수는 선무도 특유의 장지르기부터 발차기, 봉술들을 배웠고, 급기야는 펭귄 권법을 창시하기에 이른다. 자신이 창시한 펭귄 권법을 현웅 법사와 수련생들에게 가르쳐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펭수가 '선무 펭수'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6월 3~4일 촬영됐으며, 촬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펭수에게 선무도를 가르친 현웅 법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TV를 보지 않고 인터넷도 거의 하지 않아 펭수라는 캐릭터를 아예 몰랐다. 촬영 전 작가 분이 펭수 관련 영상을 보내줬지만 괜한 선입견이 생길까봐 보지 않았다"면서 "막상 함께 촬영하니 너무 귀여웠다. 펭수의 연기가 99% 애드립이라 당황한 면도 있지만, 10살 어린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 같아 즐거웠다"고 밝혔다.


선무도 체험에 나선 펭수가 삭발하는 모습. 사진=자이언트 펭TV 캡처

### 선무도 수련 전엔 마음 수행
### 삭발 후 법명 '펭달' 수지도

### 골굴사 촬영 내내 화기애애
### "10살친구와 놀이하듯 촬영"

이어 "굉장히 더운 날씨임에도 펭수는 정말 열심히 수련했다. 더운 털을 가진 펭수가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에 골굴사 대중들도 더욱 열심히 수련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펭수에게 법명 '펭달'을 내린 스님은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이라고도 했다. 현웅 법사는 "영상에는 일관 스님이 법명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법명을 지어서 내린 분은 주지 적운 스님"이라며 "'선종초조 달마 대사처럼 모든 것을 통달하고 막힘없이 즐겁게 살아가라'는 주지 스님의 뜻이 담긴 법명"이라고 설명했다.

좌충우돌 펭수의 선무도 수련기는 유튜브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첫 편인 '속세 떠나려고 머리 밀었습니다'는 6월 24일 기준 63만 회를 넘었고, 두 번째 편 '강해진다는 건'은 공개 1일 만에 29만 회를 상회했다. 신성민 기자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 지정 확정

## 문화재청 6월 25일 공고
## 봉황사 대웅전 보물 지정
## 고운사 연수전 보물 예고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 제332호로 승격됐다.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됐으며,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 제332호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보물 제2068호로 지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또한,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보 제332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하 수마노탑)이 있는 정암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문화재청은 "수마노탑은 '산천비보(山川裨補)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라며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해 국보로 승격될 역사 · 예술 ·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보물 제2068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이하 대웅전)은 삼존불을 봉안한 정면 5칸의 대형 불전이며,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3칸 불전에 맞배집이 유행하던 것에 비하여 돋보이는 형식이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의성 고운사 연수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은 고운사의 사찰 중심 공간에 인접해 자리하고 있다.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하여,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의성 고운사 연수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기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제332호로 지정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